

● 이번 총선은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 특권층과 피지배층과의 일대 혈전이다.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로 장식해야 이 나라 민주화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믿는다.

● 무제한 적으로 금권을 휘두르는 허삼수 후보의 엄청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이 동구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우리 나라 국민, 그 중에서도 부산시민, 특히 동구 유권자들의 건강성을 믿는다.

● 나는 민주투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소탈한 인권변호사에 불과하며 서민들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가슴아파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



# 노무현

기 호

# 2

부산의 자부심,  
믿음직한  
우리의 이웃!

통일민주당  
동구지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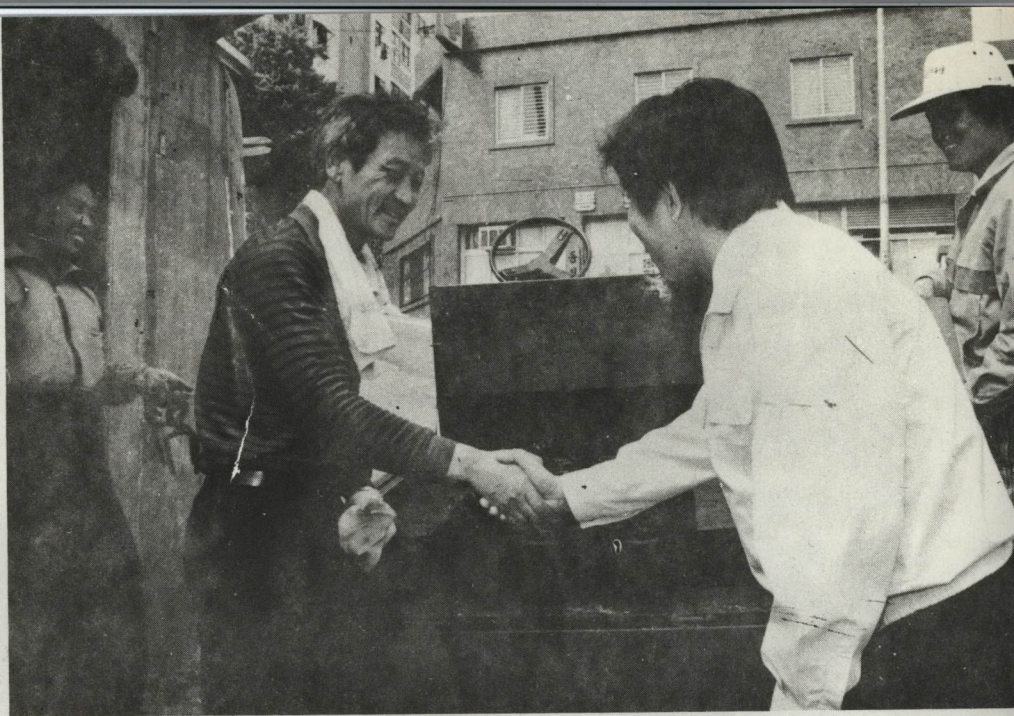
42740



서민대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노무현

**선거철**만 되면 모든 후보가 서민대중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떠들고 실현불가능한 공약만 남발하는 것을 서민대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대중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실제 서민대중의 진실된 벗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서민들의 주택철거 보상문제 및 부채변제, 상환문제에 대한 무료상담,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기위한 노동문제무료상담,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구속된 학생들의 무료변론 등에 앞장서서 일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는 인권변호사입니다.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고민하는

야권통합을  
이룩해 낼 새로운  
인물

# 노무현

**광복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전두환정권의 계승자인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재의 억압과 착취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이 땅의 민중들이 진정 사람사는 세상에 살기를 기원하는 노무현, 그는 전신의 힘을 모아 이렇게 웅변합니다.

“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외세의 간섭없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한 자주적 민주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스런 자주적 민주국가를 수립하여 미국으로부터 군사작전권을 반환받아야 하며, 6천만 민족의 씨를 말려버릴지도 모르는 가공할 핵무기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노무현** 후보는 시류에 흔들리는 기회주의적 인사나 사리사욕에 눈먼 짓대없는 사람을 가장 경멸합니다.

그가 늘 생각하고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설움받는 서민들의 이익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후보야 말로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열망하고 있는 야당통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룩해 내 우리 부산시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 줄 믿음직한 용기와 패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자! 노무현과 함께 사람사는 세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진

# 노무현

**노무현** 후보는 결코 과격한 불순분자가 아닙니다. 노무현 후보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데모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당당한 자세로 독재정권에 맞서서 이렇게 외쳤고 앞으로도 여전히 외칠 것입니다.

총 들고 정권탈취하고 국뽀세금 도둑질하지 마시오.  
그러면 데모 안 합니다.

남의 집 귀한 딸 경찰서 뒤편에 가둬놓고 짐승같은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데모 안 합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 때리고 물 먹이고 고문해서 죽이지 마시오.  
그러면 데모 안 합니다.

없는 사람 무시하고 짓밟지 마시오.  
그러면 데모 안 합니다.



세계언론에 주목받는 민주화의 기수

# 노무현

**이번** 총선은 민주진영대 군부독재진영의 싸움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 동구는 그 싸움의 전국 최대격전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언론들은 지금 우리 부산 동구의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국영T.V-NHK는 다섯 차례에 걸쳐 노무현 후보를 취재했습니다.

다음은 그 인터뷰에서 말한 노무현 후보의 발언요지입니다.

- 한국을 후진국으로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로 착각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생각하면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 않지만, 이기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진 일본 청년들에게 한국청년들의 순수하고 뜨거운 애국심과 민주화에 대한 건강한 신념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 인터뷰에 응한다.

